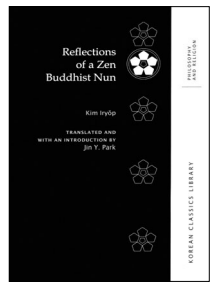


# 일엽 스님 저서 50년 만에 영역

〈Reflection of a Zen Buddhist Nun〉

〈어느 수도인의 회상〉 영문판

일엽 스님 지음 | 박진영 번역 | 하와이대 출판사 펴냄



〈Reflection of a Zen Buddhist Nun〉은 근대 한국 불교의 대표적 비구니 일엽 스님(1896~1971)의 작품인 〈어느 수도인의 회상〉을 저본으로 한 영문판으로 〈미래세가 다

하고 남도록〉의 일부도 포함되어 있다. 김일엽 문화재단(이사장 월송)이 출판을 후원했고, 워싱턴 소재 아메리칸대학 철학과 박진영 교수가 번역했다.

〈어느 수도인의 회상〉은 일엽 스님이 스승 만공선사의 뜻에 따라 절필한 지 30년 만에 대중포교의 뜻을 두고 펴낸 책으로, 세간에 잘 알려진 〈청춘을 불사르고〉의 초간본이라 할 수 있다. 일엽 스님의 불교사상과 참선세계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수상록이다.

책은 불교의 사상을 잘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비구니로서의 삶을 불교적 맥락에서 서술하고 있어, 현재 미국학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불자' '여성불교'에 관한 논의에 공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엽 스님의 글은 누구라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삶의 이야기가 불교교리에 관한 논의와 잘 섞여있어, 불교학자들 뿐 아니라 영어권의 불교 수행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스님은 생전에 자신의 책이 영어로 번역되

어 서양인들에게 읽히길 원했다. 이번 영문판의 출간은 스님이 입적한 지 40여 년 만이고, 책이 나온 지 50여 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문인, 여성운동가, 철사가 등의 다양한 삶을 살았고 마지막을 종교인으로서 마감한 스님의 생애는 '정신의 투철함'으로 가득하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항상 투철한 '자기 정신'으로 '자기의 소리'를 내며 최선을 다해 '자신의 생'을 살았다. 그러한 치열함으로 이 세상의 벽을 부수고자 노력했으나 인간적인 한계와 현실의 제약으로 고뇌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고뇌의 끝에서 만공선사라는 선지식을 만났다. 만공선사로부터 영원을 사는 큰 가르침을 얻게 되어 불가에 입문 하게 되었고, 생애 전반에 흐르는 투철함을 바탕으로 철저히 '자기 완성'의 길을 추구했다. 그렇게 스님의 삶은 1928년 입산이 가장 큰 분수령이었다. 목사의 딸로 태어나 신학문을 수료하고 동경 유학까지 다녀온 인텔리 여성이며, 더욱이 개화기 최초의 여류 문인으로서 신여성 운동을 주도하며 세간의 주목을 한 몸에 받던 그녀의 출가는 세상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두 번의 결혼과 실패, 자유연애론과 신정조론으로 대표되는 여성해방운동, 불같은 사랑 등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삶을 이끌어 오던 그간 한 순간에 모든 것을 버려야 세간의 의견은 분분했다.

스님의 글이 다시 세상에 나온 것은 1960년 초, 글 또한 망상이라며 불림문자를 내세우는 스승 만공 선사의 뜻에 따라 절필한 지 30년 만에 더 지난 뒤였다. 대중포교에 뜻을 두고 펴낸 〈어느 수도인의 회상〉, 〈청춘을 불사르고〉 등은 출간되자마자 세인의 관심을 끌며 서점가를 뒤흔들었다.



비구니로서의 삶 불교적으로 서술한

〈어느 수도인의 회상〉 영문판

생전에 영문판 출간 발원

1960년 출간 당시 서점가 술렁

최남선보다 먼저 신시 발표

문인, 여성운동가 등 다양한 삶

스님이 우리 문화계에 남긴 업적은 적지 않다. 신체의 효시로 알려져 있는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보다도 1년 빠른 1907년에 이미 '동생의 죽음'이라는 시를 쓴 바 있어서 사실상 우리나라 신시의 지평을 연 사람 중의 하나이다. 또한 한문의 형태로 내려오던 선문학이 만해 스님에 이르러 근대화의 옷을 입었고 그 명맥을 일엽 스님이 이어왔다.

"사랑이란 우주 전체의 힘이며 생명 본체의 생사가 달린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이다. 나

는 사랑의 근본을 알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고 중(備)이 되었다." 스님은 종교인이기 이전에 철학가이자 사상가적인 면모가 많았다. 삶 전체에 흐르는 특유의 정신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삶을 주체적으로 지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런 그가 중요한 인생 문제의 실마리가 불법에 있음을 알고 주저 없이 출가한 것이다. 스님의 출가는 인생을 겪고 찾아나서야 할 삶의 절실한 출발점 이었던 것이다. 스님은 현실 문제에 바탕을 둔 인간성 회복을 수행의 일차적 과제로 삼았고 나아가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인간 구제에 뜻을 둔 수행이었기에 종교를 위한 종교가 아닌 생명력 있는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 1971년 1월 28일 새벽, 스님은 자신이 건립한 비구니 선원에서 열반에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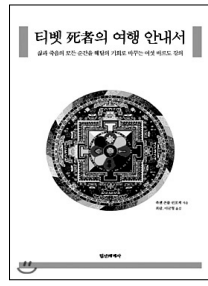
책은 서문, 1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문은 번역자인 박진영 교수가 '김일엽 : 삶과 사상'이라는 제목으로 일엽 스님의 삶과 문학, 신여성으로서의 활동, 종교관을 소개하고 있다. 1부는 〈어느 수도인의 회상〉이 '인생', '불교와 문화', '만공대화상을 추모하며(15주기일)', '입산 25주년 새해를 맞으며', '방콕에서 추최되는 제5회 불교도연맹대회에 보내는 제의서', '불교에서는 왜 평화운동을 일으켰나', 'C선생에게 (C선생은 사학자로 불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함)', 'M친구의 편지를 읽고', 'R씨에게', 'B씨에게', '반환된 선물을 안고서', '노스님 원고를 베끼고 나서 (월송스님)'의 순으로 번역되어 있고, 2부는 〈미래세가 다하고 남도록〉중에서 '공으로 돌아가라', '기도와 염불', '참선과 심묵', '영생을 사는 길 : 언론인들에게'를 발췌하여 번역한 것이다.

박재환 기자

# “제대로 된 삶 살기 위해서는 죽음 제대로 직시해야”

티벳 死者의 여행 안내서

죽은 품를 린포체 지음 | 최림, 이균형 옮김 | 정신세계사 펴냄 | 2만원



죽은 품를 린포체는 동서양의 정신세계를 넘나드는 깊은 이해와 스텝없는 파스함으로써, 완전한 초월을

이를 기회인 여섯 바르도에 대한 티벳의 신비로운 가르침을 현대의 독자 들 앞에 생생히 풀어낸다.

이 책은 2002년에 14회에 걸쳐 북미의 구도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강의의 내용을 추가적인 가르침과 설명이 덧붙은 것으로, 뒤늦게 필사자료라도 구하고 싶다는 사람들의 요청이 쇄도한 덕분에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린포체는 사후의 바르도뿐만 아니라 현생의 바르도까지 망라하여, 각각의 바르도마다 어떤 수행이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우리를 안전하게 해탈의 길로 인도하는지를 빠짐없이 설명해준다.

보통 '바르도(bardo)'는 현생과 다음생 사이의 중간(中陰界)을 뜻하는 말로 통용되지만, 본래는 어떤 두 지점 사이의 상태 또는 시간을 뜻하는 말로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품를 린포체는 이 책에서 티벳 불교의 전통에 따라 현생과 관련된 세 가지 바르도(현생, 꿈, 명상)와 죽음과 관련된 세 가지 바르도(죽음, 사후세계, 환생)를 정교하게 분류하여 설명함과 동시에 그 모든 존재 상태를 관통하여 이어지는 마음의 근본적인 성질을 드러내 보여준다.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의식은 죽음 이후의 과정에서 격렬한 감정이 두려움, 공황에 압도되기 쉬우므로 그전에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법을 미리 배워두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다른 바르도 속에서도 수행의 요체는 본래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생에서 쌓은 수행의 성과는 사후에도 유효하며 오히려 사후세계에서 하는 마음이 작나라하게 제 모습을 드러내므로 그 공성(空性)을 꿰뚫어 해탈에 이를 기회를 더 쉽게 얻을 수도 있다.

〈사자의 서〉는 티벳 불교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경전이다. 죽음에 관한 인류 최고(最高)의 경전으로 꼽히는 이 책은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직시해야 한

다”고 가르친다. 이 경전은 14세기에 발굴돼 20세기 초에 서구사회에 소개됐다. 심리학자 칼 구스타브 융은 ‘가장 차원 높은 정신의 과학’이라는 극찬과 함께 장문의 해설을 쓰기도 했다. 이 경전을 저술한 파드마 삼바(번역에서 태어난 사람)를 티베트 사람들은 문수·금강·관음보살, 세존자(尊者)가 합일한 화신(化身)이며 ‘제2의 붓다’라고 부른다. 그런 그도 죽음 앞에서 이렇게 기도한다.

“.../당신의 자비의 밭으로 그를 붙잡으소서/악한 카르마의 힘에 이 생명 가진 자가 굴복하게 하지 마소서/아, 진리와 진리를 깨달은 자와 그를 따르는 구도자들이며/ 사후세계의 불행으로부터 이 자를 보호하소서 /...”

또한 국내에서도 류시화 시인이 번역한 에반스 웨즈 편집판이 20만 부 이상 판매되었을 만큼 전 세계 구도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시대를 앞선 의식탐구서이기도 하다. 하지만 티벳의 수행전통에서 통용되는 다

티벳 불교서 독보적 위치 차지

‘바르도’ 수행 체계 정리

칼 융, 최고의 정신 과학 극찬

양한 상징들의 의미와 전후 맥락을 알지 못하고는 이 책을 입체적이고 통찰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 책은 바르도 수행을 매개로 삼아 티벳의 실제 수행체계를 현대의 언어로 일목요연하게 펼쳐 보임으로써, 국내외 독자들에게는 가장 탁월한 〈사자의 서〉 해설서인 동시에 가장 실용적이고 흥미로운 티벳 불교 입문서가 되어줄 것이다. 김주일 기자

저자 죽은 품를 린포체는?

1965년 인도 북부 시킴에서 태어났다. 달라이 라마로부터 죽은 품를 법맥의 7대 환생으로 인정받고 1968년 툽텐 승원에서 제7대 죽은 품를로 공식 인정되었다. 16대 카르마빠, 달고, 툽쿠 오겐 린포체, 노출 켄 린포체, 그리고 직계 스승인 켄보 출림 가초 린포체로부터 님마파와 가규파의 수행 지도와 전법을 받았다. 현재 북미 지역에서 티벳 불교학자이자 명상 지도자로 활동하며 국제적 불교연구 및 수행 센터인 날란다보디(Nalandabodhi)를 설립하여 운영 하고 있다.

## 23개 산 주변에 깃든 옛이야기

이야기가 있는 산행

황찬의 지음 | 역사인 펴냄 | 2만3천원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최근 보도에 따르면 등산객이 늘었다고 한다. 꼭 전국의 유명산이 아니라 조그만 야산에도 주말에는 줄을 서서 다녀야 할 정도로 등산객들이 분된다. 그러나 늘어난 등산인구에 비해 등산문화는 제자리 걸음이다. 산 위에서나 아래서나 모두 먹고 마시는 것이 산행보다 먼저인 경우가 많다. 이를 평소 안타까워한 황찬의 前 봉은사 주무살장이 최근 〈이야기가 있는 산행〉을 펴냈다. 불국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90년대 초 불교계와 인연을 맺은 저자는 산중에서

도 가장 명당에 위치한 사찰을 자주 찾게 되고, 스님들만이 알고 다니는 외진 산길을 걷는 일을 즐기게 됐다. 이런 그가 바람직한 산행문화를 생각해 보자는 의도로 만든 책이 바로 〈이야기가 있는 산행〉이다. 산과 산 주변에 깃든 역사와 인물, 옛 이야기들을 꼬집어 내서 산행을 할 때 그것들과 교감하며, 걷고 마치고 돌아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산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다. 지명과 설화 등 길가에 놓여 있는 옛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생각을 풍부하게 할 때 티벳어법 걷는 것이 단순한 다리운동에 그치지 않고 가슴을 트이고 머리를 맑게 하는 수행에 다름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책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4계절에 맞춰 테마별로 구성했다. 총 23개의 산이 등장한다. 책 속에는 산뿐만 아니라 그 산에 속한 사찰도 함께 소개돼 있어 불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김주일 기자 kimj421@hyunbul.com

## 선 흐름 짚어 체계적으로 정리

단전주선

길도훈 지음 | 씨아이알 펴냄 | 1만5천원



단전주란 마음이 단전을 떠나지 않고 항상 머무르는 것을 일컫는다. 단전주선은 원불교 〈정전〉에 수록된 좌선법으로, 원불교 교조 소태산의 깨달음 이후에 그동안의 수행과정을 되짚고 다듬어서 정돈한 간결한 선법이다. 총론 차원에서 드러낸 원불교 좌선법을 길도훈 교수가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프로그램화하여 이 책을 썼다.

진리와 스승에 대한 믿음으로 수행의 밝은 길을 밝히는 저자는 스승들의 가르침을 토대로 선의 흐름을 짚어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정리했다. 선에 관심 있는 사

람이라면 특정한 재능 없이도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변화 과정을 느끼면서 좌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궁극적인 목적에 따른 단계별 목표로 나눠 정리했기에, 방법을 위한 방법으로 해매는 일 없이 선의 과정을 밟아 가도록 했다.

저자는 초심자의 심경에 따른 선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25년 전부터 초심자의 자세로 하나하나 단계별로 정리 했다. 또한 직접 선방을 열어 15년 이상을 선과 성리를 지도하면서 터득한 현장 경험을 더해 실용적이고 객관화된 좌선법을 완성했다. 이 수행법을 따라 수행하면 초심자라도 좌선의 맛을 느낄 수 있고, 이미 수행해온 사람들은 경지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저자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이 책에는 옮긴은 구도자의 진솔한 수행담과 진리의 소식이 함께 녹아 있는 것도 특징이다. 김주일 기자

김주일 기자

###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얇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기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썩뎠을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뎠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썩뎠(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차서냉  
\*오심건,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허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심건조기,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